

## Issue & Focus

### 유럽의 환경보건전략과 실행계획

#### 개요

환경문제는 국지성에서 광역성으로, 높은 농도에서의 노출로부터 낮은 농도에서의 장기간 노출로 그 특성이 변화하여왔다. 이와 함께 환경관련 건강문제 또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지속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문제와 국민보건문제의 해결책이 통합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계기로 환경보건정책이 수립,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52년 런던 스모그 사건에 의한 호흡기 질환을 계기로 유럽은 환경과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현재 환경보건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럽의 환경보건정책은 우리나라의 정책 수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럽에서 현재 진행 중인 환경보건전략 및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유럽환경보건정책의 주요 쟁점사항들과 정책이행방안 등을 살펴본다.

#### 유럽의 환경보건정책 추진과정

유럽의 환경보건정책은 사후처리보다는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환경으로 인한 위험요인들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감소시키겠다는 목표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이행과 목표 달성 과정은 5년마다 개최되는 환경보건장관회의(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Health)의 논의사항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89년부터 2004년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된 환경보건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1차 환경보건장관회의 (Frankfurt am Main, 1989)

제1차 환경보건장관회의는 일반적인 포럼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유럽환경보건헌장(European Charter on Environment and Health)」이 발표되었다. 본 헌장은 WHO에 가입한 유럽 국가의 장관들이 환경과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절차, 우선순위 등에 합의한다는 것과 유럽환경보건센터(WHO European Centre for Environment and Health)의 설립을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본 회의에서 5년마다 환경보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실행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학연구진, 교수진, 기업체, NGOs, 국제기구 등 환경과 보건 분야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유럽의 환경보건전략의 이행과정에는 기술실무그룹(Technical Working Group)과 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이 활동하게 된다. 이는 환경과 건강간의 관련성에 대한 종합적 접근방식을 통해 환경과 건강에 관한 자료와 지식을 종합하여 상호 연결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이와 같은 실행계획과 함께 유럽환경보건전략

은 기존의 단일 오염물질별 환경관리가 아닌 복합 오염물질에 의한 노출과 여러 가지 오염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한 낮은 농도의 장기 노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전략추진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는 환경기준 및 배출기준 등을 재검토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1) 1994년의 제2차 환경보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헬싱키 헌장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환경과 보건 분야의 각종 정부·비정부 기구 관계자들의 연합체이다. 이 위원회는 유럽 국가들간의 환경과 보건 분야의 협력을 도우며 실행계획에 대한 시행을 감독하고 각 국가가 환경보건전략의 목표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 국민건강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아토피 피부질환, 천식 등 환경성 질환과 새집증후군 등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내환경보건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2006-2015)」을 수립하고, 본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를 “환경보건원년”으로 삼아 본격적인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환경보건의 정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2006-2015)」은 “위험인구 최소화 로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 환경보건 조사연구기반 및 행정기반의 구축(법령정비, 조직확충 등)을 위한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오염 위험인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출 모니터링평가, 위해성평가 및 건강영향평가가 시행되며, 이와 더불어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성 질환 조사/감시, 오염-질환 상관성 규명이 수행될 예정이다.

**(2) 제2차 환경보건장관회의 (Helsinki, 1994)**

제2차 환경보건장관회의에서는 국가간의 결속 강화, 지속가능발전 실현, 환경과 건강 분야만이 아닌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보건의 원리 적용을 기반으로 하는 「유럽환경보건실행 계획(Environmental Health Action Plan for Europe: EHAPe)」이 발표되었다.

**(3) 제3차 환경보건장관회의 (London, 1999)**

제3차 환경보건장관회의의 주제는 'Action in Partnership'이었다. 이에 따라 공동의 물관리를 통해 물과 관련된 환경성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1992년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선언된 환경과 보건에 대한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운송수단이 환경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화한 「운송, 환경, 보건에 대한 헌장(the Charter on Transport, Environment and Health)」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기후변화와 오존층파괴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어린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유럽환경보건위원회(European Environment and Health Committee: EEHC)1」의 권한과 임무를 5년간 연장하며 2004년 부다페스트에서의 회의를 약속하는 런던선언(London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4) 제4차 환경보건장관회의 (Budapest, 2004)**

제4차 환경보건장관회의는 'The Future for Our Children'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4차 회

의에서는 「어린이 환경보건 실행 계획(Children's Environment and Health Action Plan for Europe: CEHAPe)」을 채택하고 본 계획의 자국내 이행에 대해 약속하였으며, 유럽환경보건위원회(EEHC)의 임무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CEHAPe의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2007년에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유럽 환경보건전략의 개요와 주요 내용**

1970년대 환경정책 초기단계부터 건강의 관점에서 출발한 유럽의 환경보건정책은 건강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결되어온 문제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남아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금까지의 환경보건정책이 이러한 복합적인 환경과 보건상의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 통합 접근 방식인 「유럽 환경보건 전략(European Environment and Health Strategy)」을 채택하였다.

본 전략은 환경적 요소와 질병을 연관시키고 환경성 질병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기적 비전으로, 기존의 환경과 보건 분야의 연구를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 이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방식이다. 또한 환경보건전략의 이행은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분야의 전략들(해양환경, 수질(Water Framework Directive), 대기질(Clean Air For Europe: CAFE), 도시환경, 토양보전, 폐기물 발

생예방 및 재활용)과 연관되어 진행된다. 유럽환경보건전략은 ①환경적 요인에 의한 질병부담 감소, ②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새로운 건강 위험 파악과 예방, ③환경보건분야에 대한 정책결정 능력 강화 등을 최종 목표로 하며,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취약계층 건강보호의 관점에서 "SCALE"이라 불리는 다음의 5가지 주요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 \* **Science:** 환경과 보건 분야의 광범위한 연구자 및 이해당사자의 지식 통합
- \* **Children:** 환경 유해인자에 취약한 집단에 초점
- \* **Awareness:** 환경보건문제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 제고
- \* **Legislation:** 전략의 이행을 위한 입법 활동 전개
- \* **Evaluation:** 활동의 효과와 비용효율 확인을 위한 지속적인 평가 실시

이와 같은 유럽환경보건전략은 단계별 이행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제1단계인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①어린이 호흡계 질환, 천식,

알레르기, ②신경발달 장애, ③소아암, ④내분비계 교란물질 등과 이에 관련된 환경적 요인들(실내·외부 공기질, 다이옥신, 중금속, 전자기장, 도시환경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한다.

**유럽환경보건전략의 실행계획**

위에서 살펴 본 유럽의 환경보건전략은 환경과 보건 문제에 관한 통합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하나의 비전이다. 이를 바탕으로 「1단계 유럽 환경보건 실행계획(European Environment and Health Action Plan 2004-2010)」이 2004년 6월 제4차 환경보건장관회의에서 승인되었다. 본 실행계획은 환경성 질환의 감소를 위한 과학적 정보의 기반 구축과 환경, 보건, 연구 분야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유럽환경보건 실행계획 2004-2010

항 목	실행계획 세부내용
환경과 보건 정보 통합을 통한 정보의 연관성 강화	(Action1) 환경보건지표 개발
	(Action2) 인체노출정도를 분명하게 파악·평가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개발
	(Action3) 바이오모니터링(혈액, 머리카락 등)에 대한 일관된 접근법 개발
	(Action4) 환경과 보건에 대한 조정과 협력 활동 강화
환경과 보건에 관한 연구 강화와 새로운 문제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정보의 차이를 줄임	(Action5) 유럽의 환경과 보건 연구의 통합·강화
	(Action6) 질병, 장애, 노출에 대한 집중 연구
	(Action7) 환경과 보건의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구축
	(Action8) 확인된 환경과 보건의 잠재적 위험 구체화
인식증대, 위해성 정보교환, 훈련과 교육 제도개선, 위해성 감소 정책의 제고와 적용	(Action9) 공중보건프로그램을 통한 공중보건활동과의 네트워크 강화
	(Action10) 환경과 보건의 전문적 훈련 증진과 조직적 능력 증대
	(Action11) 우선순위의 질병에 대해 진행중인 위해성 감소 대책과의 연계 이행
	(Action12) 실내 공기질 정화
	(Action13) 전자기장(EMF)의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연구